



유로존 해체 가능성 확산

이정환 선임연구원

■ 6월 11일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구제금융 규모와 조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함.

- 6월 14일 스페인 국채(10년 만기)금리는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인 6.86%까지 상승하였으며, 무디스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정크본드 바로 위 단계인 Baa3로 3단계 강등함.
- Deutsche Bank는 구제금융 규모, 자금 투입·조성 방식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분석함.
 - 1,000억 유로(약 146조 2,330억 원)로 알려진 구제금융 규모는 스페인 은행권 부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¹⁾
 - EFSF 또는 ESM이 제공하게 될 구제금융은 FROB(스페인 은행지원기금)에 의해 집행 되는데 이는 결국 스페인의 부채를 늘리게 되어 국가 재정 건정성에 오히려 부담이 됨.²⁾
 - 구제금융 자금이 은행권에 충분히 지원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감축, 긴축재정을 위한 지방 정부 협조,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구제금융이 필요함.

■ 유럽연합(EU)의 위기 대응력 미흡으로 시장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구제금융설도 제기되었고, 유로존 와해 가능성이 높아짐.

-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통한 스페인 은행권 위기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先 재정동맹(fiscal union) 後 은행동맹을 주장하는 독일의 반대로 해결책이 지연되면서 위기가 확대됨.

1) 공적자금이 투입된 방키아는 전체 부동산 연계 채권 가운데 부실 채권 혹은 부실로 의심되는 채권 비율이 2011년 말 기준으로 73%에 달하는데 그 이후 경기침체로 실질 금액이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됨. 전문가들은 은행권 정상화를 위해 2,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스페인 국가 부채가 9,000억 유로(약 132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1,000억 유로 정도가 추가되면 채권자들에게 부담이 더욱 증가할 뿐임.

- 이탈리아와 주변국인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압박설이 대두됨.
 - 재정이 부실한³⁾ 이탈리아는 국채(10년 만기) 금리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6.301%로 상승하였으며, 국채 입찰금리는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⁴⁾
 - 무디스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키프로스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커졌다고 발표함.⁵⁾
- 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을 전제로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짐.
 - 독일 정부에 따르면 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을 전제 조건으로 6월 17일 총선에서 구성될 정부가 개혁이행약속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유로존이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만큼 재협상 시사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핀란드의 유로존의 탈퇴 가능성이 높아짐.
 - 일부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해 지급 보증을 요구한 핀란드의 ‘핀란드인 정당(True Finns)’⁶⁾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핀란드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독일과 영국 등의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재정위기가 중심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
 - 6월 13일 독일 국채(10년 만기)금리는 전날보다 0.12%포인트 상승한 1.424%를 기록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전일대비 각각 16bp, 47bp씩 오른 1.69%와 2.73%를 기록함.
 - 위기가 확산되면 자금을 공급할 유럽 중심국의 경제도 악화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임.
 - 피치는 위기가 심화되면서 AAA등급인 유럽 중심국들도 신용등급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Wall Street Journal 등 6/13, 6/14)

3)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조 3,000억 달러로 이탈리아 GDP대비 121%에 달하여 그리스(140%)에 이어 유럽 내 2·3위이며 액수 기준으로는 세계 3위임.

4) 6월 13일 1년 만기 단기 국채 65억 유로를 3.972% 평균 금리에 발행하였는데 이는 2012년 5월 2.340%에 비해 크게 상승함.

5) 무디스는 키프로스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Ba3로 2단계 강등함.

6) 핀란드인 정당은 유로존 유지에 반대함.